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 무상품(無常品) ②

雖壽百歲 수수백세  
亦死過去 역사과거  
爲老所厭 위노소멸  
病條至盡 병조지제

비록 백세를 산다해도  
죽으면 그뿐 지난 일인데  
늙는 것도 싫은 일거든  
병까지 때맞춰 다가드네

是日已過 사일이과  
命則隨滅 명칙수감  
如小水魚 여소수어  
斯有何樂 사유하라

오늘 하루해 지나가면  
명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  
마치 고인 물에 갇힌 고기골이라  
거기 무슨 즐거움 있대랴

老即色衰 노즉색쇠  
所病自壞 소병자괴  
形效腐朽 형태부후

### “게으름피고 음행하고 베풀지 않으며 佛法 받들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일”

命終自然 명종자연

늙으면 형색이 스러지고  
병들어 스스로 무너지며  
몸은 망가지 썩어지나니  
그렇듯 목숨마침은 자연스러운 것

是身可用 사신하용  
恒懼衰處 항부취처  
爲病所困 위병소곤  
有老死患 유노사환

내 몸이라 무슨 소용있랴  
언제나 괴고름 새어나는 곳  
항상 병들어 시달릴 받고  
늙음과 죽음과 근심 서린 곳

諸欲自恣 가족자자  
非法是增 비법시증  
不見財寶 불견문번  
壽命無常 수명무상

즐기고 싶은대로 다 즐기어  
법랍지 않은 지만 늘려가니  
변하는 이치 돈도 보도 못했는가  
목숨이란 팔네 덧없는 것을

非有子持 비유자지

亦非父兒 역비부형  
爲死所迫 위사소백  
無親可怙 무친가호

자식이라 믿을게 못되고  
부모 형제도 믿을것 없네  
죽음이 바짝 쏘아 올때는  
피붙이도 믿을 수 없대네

晝夜憂悔 주야만타  
老不止淫 노불지음  
有財不能 유재불시  
不受佛言 불수불언  
如此四弊 유차사폐  
爲自侵欺 위자침기

밤 낮으로 마냥 게으름피고  
늙도록 음행 그치지 않고  
재물 있으나 베풀지 않으며  
부처님 말씀 받들지 않으니  
이 네가지 작해야 말로  
자를 해치고 속이는 짓일뿐

非空非海中 비공비해중  
非入山石洞 비산산석동

無有地方所 무유지방소  
脫之不受死 탈지불수사

허공도 아니요 바다속도 아니고  
깊은 산도 바위틈도 아니니  
어디에도 숨을 곳 없으랴  
죽음 모면하고 받지 않을 곳이란

是務是吾作 시무시오작  
當作令致是 당작령치시  
人爲此障礙 인위차조요  
羅縲老死憂 리한노사우

원색야지, 내가해야지,  
마땅히 내가 마칠 일이지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해 하지만  
늘어 죽을 걱정은 그대로 밟고가네

知此能自淨 차차능자정  
如是見生盡 여시견생진  
比丘羅漢道 비구열마병  
從生死得度 중생사득도

이렇듯 덧없음을 알아 스스로 밝히고  
이같은 생의 마침을 바로보야  
비구는 마구니를 씌어하나니  
나고 죽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네

龍眼

# “착하게 사는 재가의 삶

## 비룡스님 (월정사 조실)

“자기본심 몰라 미혹에 싸여 있지만  
삼학답으면 본성 볼 수 있어요”

나는 1927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방암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처음 22살때 강원도 인제에서 한암스님의 법문을 듣고 느낀 바가 많아서 편지를 올렸지요. 얼마 후 스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오대산에 와서 공부하라는 말씀이었지요. 그길로 스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나는 도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도교 책을 보여드리자 스님은 “나는 그런 것은 모른다” 하며 “올마니반야” 6자진언을 알려주셨습니다.

1901년 개성 양반집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청년시절 도교 천도교 예수교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예수교를 믿었는데 믿다가 보니 천당간다는 말밖에 없어 도교를 찾게 되었지요. 강화도, 구월산, 설악산 등지에서 도교수행도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공부할 하던중 한암스님을 뵈고 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도 닦는 공부하는데 부처님 법 이외는 소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도교는 죽지 않고 오래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불교는 생사를 벗어나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도(道)란 것을 알게 됐지요.

하지만 출가의 구체적 원인은 ‘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를 물러내기 위해 신통력(神通力)을 얻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머리를 깎기 전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심부름도 했지요. 말하자면 신통력을 얻어 독립을 이루려는 한 생각이 절실 인연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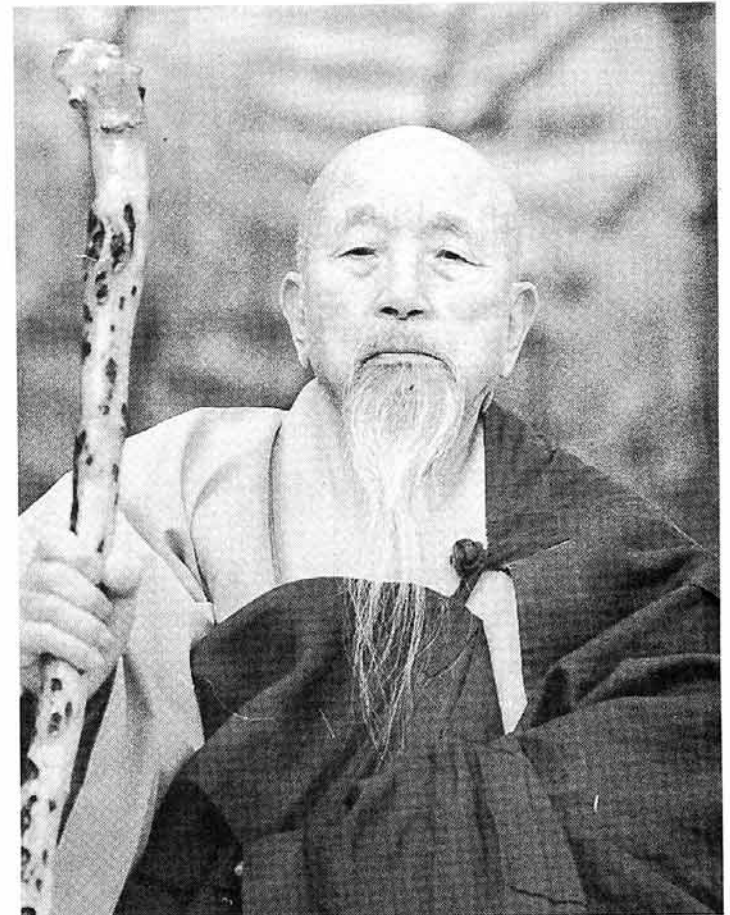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출가는 한암스님을 뵈기 몇년 뒤에 하게 됐습니다. 당시 오대산에 가보니 스님들 사는 모습이 엉망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적든 스님에게 하대(下待)하는 시대적 풍토도 한몫 했지요. 그래서 출가는 하지 않고 처사로 있으면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부목생활 공양주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신심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탄허스님으로부터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금강경)을 공부하던 중 ‘법소유상 개시하람 약견제 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라는 구절을 접하고 스 출가를 발심하게 되었지요. “무릇 모든 사물은 무상한 것이다. 만약 모든 사물이 진실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보리라”는

이 4구제(四句偈)로 온갖 상(相)을 깨치고 본성을 보리라 마음먹었지요.

한암스님은 늘 “공부라는 것을 일념으로 생각하되 계(戒)를 지켜야 한다. 계를 지켜야 정(定)을 닦을 수 있고 정을 닦아야 선정(禪定)에 들 수 있다. 선정에 들어야 생사를 뛰어넘어 해탈자재(解脫自在) 할 수 있다” 하셨어요. 또 계를 지키기 위해 해 돈과 색(色)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제자나 스님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공부해라. 종이 공부 안하면 큰 죄를 짓는다” 하신 스님은 “공부하지 않으면 쌀 한톨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굶는 쇠뿔을 마

- 1901년 개성 생
- 1927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 금강산 마하연, 상원사 등 제방 선원에서 인거수행
- 1965년 한라산 천왕사 창건
- 現 월정사, 천왕사 조실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계를 속박으로 생각하지만  
계를 지켜 童心으로 돌아가면  
분별심 끊고 삼매에 들 수 있어요”

실지안정 시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게 스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었지요.

이런 가르침을 스님 당신께서는 항상 생활화 하셨습니다. 한번은 목포에서 운정 용스님이 대중공양 거리를 가져왔는데 오 는 이틀동안 음식이 썩어 못먹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썩어서 못먹는다고 했지만 스님은 신도의 정성을 생각해 버려서는 안된다며 북아서 먹도록 했지요. 결국 스님의 정성 때문인지 모두들 큰 음식을 먹고도 아무 탈이 없었어요. 깨달음은 사소한 일에 정성을 다하고 계를 지키는 가운데 오는 것임을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암스님의 청빈한 수행태도는 내가 오랫동안 생식(生食)을 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술을 잘라서 먹는 생

식은 몸과 마음을 아주 가볍게 해 음식(淫心)이나 탐욕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천공행(實踐修行)하시는 스님의 자연 스런 가르침은 나의 공부에 큰 좌표가 되었습니다. 상원사에서는 행자생활을 하면서도 입승을 보았는데 80명분의 공양을 지으면서 한번도 대중앞에 불려가지 않을 정도로 소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일본군이 유기그릇을 방출하려면서 절살림을 헛어갈 때도 불기(佛器) 재기(齋器) 등 2천 여점을 다량방에 숨겨 화를 모면한 적이 있었어요.

한암스님의 엄격한 가르침은 금강산 마하연에서 한 3년 용맹정전에 들어갔을 때 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하연에는 50여명의 수좌가 정진했는데 그 중에는 통산 서암스님이 있었습니다. 마하연에서 3년 정진 후 한암스님이 부르 시기에 상원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다른 스님들이 살고 있어 상원사에서는 공부를 못하고 오대산 중대, 태백산 정암사, 동암 불영사 등지를 돌며 수행했습니다. 그 뒤에는 백양사, 갑사, 해남 대흥사, 보길도 등지로 다니며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천왕사도 짓고 오대산 월정사 책일도 맡게 되었지요.

6.25 때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거칠리 병풍도에서 지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근해에서 어업을 하던 목포사람들이 한밤중에 뒤편 들어와 이복사람이 목포까지 내려왔다고 숨겨달라고 해서 전쟁이 난 걸 알았지요. 그렇게 속세와는 떨어져 있었습디다.

전쟁중에 한암스님의 입적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전쟁 와중에도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전국의 돌며 수행중에 있었기에 은사스님의 입적소식을 뒤에 접하게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한암스님은 언제든지 계(戒)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계를 지켜야

## 부처님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 서울·수도권지역 현수막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비 별도)  
— 초파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설치(미리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  
■ 90cm×5m 현수막도 있습니다. (35,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사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사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사

❖ 부처님오신날 봉축 리본 수동식 100개 25,000원  
기계식 100개 4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어깨띠(1장 : 2,500원)  
100장 이상 제작시 사할형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 (02)738-8682

☎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선문빈

## 1997학년도 제6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민음을 성취하고  
인격적 신행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무량광대한 법사의 길을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열어 갑시다!!

###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봉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가정교사 자격)

###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7년 3월 10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02)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720-1836